

“침례받고 싶습니다”

정 광영



시흥 와드 정 광영 형제 가족

금년 초순 어느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
다. 두 분의 선교사가 우리 집을 찾았습
니다. 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다
기 보다 우선 따뜻한 곳에서 쉬어 가게 하
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짧은 소개를 한 다음, 다음에 다시
방문해도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쾌히 응낙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말일에 회복된 복음에 관하
여 성실하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회사가 도산되어 직장을 잃은 데다가 지
병인 당뇨병으로 고생해오던 저는 많은 시
간을 여러가지 생각으로 보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전해준 지혜의 말씀
은 항상 새롭게 기억되었으며 오랜 습관
이 된 흡연과 커피를 마시는 버릇은 고치
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무남독녀인 로사가 2월 24일 침례를 받
고 회원이 되면서 아버도 빨리 침례를 받
아야 한다고 졸랐습니다.

주일에는 로사와 함께 모임에 참석하여
복음을 들으면서도 침례는 받지 못하였습
니다.

4월 25일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세
수를 하던 나는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
했습니다. 견잡을 수 없이 피를 토하던 나
는 극심한 탈수현상으로 혼수상태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져 호흡마저 곤란하였습
니다. 강남 성모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 호
흡기로 숨을 쉬던 나는 다시 성애 병원으
로 달리는 차안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
는 자신을 발견하고 갑자기 서글퍼졌습니
다. (...침례나 받고 죽을 걸...) 4월 29일
로사가 병원에 들어오면서 "아빠! 오늘
내가 아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
했어요." 라고 울며 서있다가 돌아간 후 잠
시 후에 시흥 와드의 이상태 감독님과 정
광재 형제님 그리고 신 일동 형제님이 병
자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축복을 받는 동
안 갑자기 열이 더 오르고 심한 오한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축복이 끝난 후 체온은
정상대로 돌아왔고 기분이 상쾌해졌습니
다.

금성 위체양으로 위의 상하에 구멍이
생겨서 수술도 곤란하여 죽을 날만 기다
리던 나는 처음으로 상쾌한 기분을 맛보
았습니다.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겨져 조
금씩 미음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5월
11일 병원 문을 나설 때 담당 의사는 고
개를 가우뚱하며 현대 의학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당부해 주었습니다. 10명의 구도자와 함
께 5월 26일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었을
때는 진정 나에게서 재생의 기쁨 바로 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병실을 찾아주신 이
상태 감독님을 비롯하여 안 회숙 자매
님, 김 민자 자매님 그리고 신 일동 형제
님과 여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
된 교회임을 회원이 되기 전에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언자가 있는 교
회에 속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
다. *

'84 청소년 캠프 (북 스테이크)

서울 북 스테이크 천마산 심신 수련장에서 19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84 청소년 캠프"를 개최하였다.

7월 31일부터 3박 4일 동안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교리와 성약 64편 33절을 주제로 하여 협동, 단결, 우정 증진 도모에 역점을 두었다.

이번 대회는 성인들도 하기 어려운 "스카이 점프" "리하이의 광야 여행"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극기심을 기르고 용기와 담력을 갖게 해주었다.

회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야간 산행의 어려움을 통해서 초기 성도들의 고통과 신앙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회 기간 동안 회원들은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라"라는 글이 적힌 "T" 셔츠를 입고 통일된 행동을 하여 질서 있는 대회가 되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을 비롯하여 많은 역원들이 회원들을 격려해 주었다.

여름 성경 학교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1984년도 동대문 스테이크 초등 협회 여름 성경 학교가 4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7월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용두 와드에서 열렸다.

작년에도 2박 3일동안 춘천에서 가진 바있는 여름 성경 학교는 매년 초등 협회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갖게 해주고 있다.

"영적인 어린이를 키우자"라는 주제로 가진 이번 모임은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고 준비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행동할 것 등을 가르쳐 주었다.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경기도 가평은 어정의 대표주에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는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경기도 가평에서 손 승은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약 60여 명의 청소년들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음이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택하여 자율적으로 모임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경전 경시 대회와 세미나 그리고 청남, 청녀 대회를 통하여 영적인 모임을 많이 갖게 되었다. *



어 민순 자매 입상 (디자인 공모전)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의 어 민순 자매는 선경 자미온 주교회사가 주최한 제1회 아이디어 디자인 공모전에 2개의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어린이용 장식 베개」와 「번기 카버」로 입상한 어자매는 상금과 상패를 받았는데 이번 공모전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경쟁을 하였다.

어자매는 귀환 선교사로서 현재 부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고 김 호직 박사 제25주기 추도식



8월 31일 오후 7시부터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된 고 김 호직 장로의 제25주기 추도식이 북 스테이크 총칭 와드에서 엄수되었다.

아침부터 쏟아진 폭우 속에서도 지역 지도자와 유족들을 비롯한 2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유덕을 마음에 새겼다.

이날 추도식에서 이 호남 장로와 한 인 상 장로는 고인이 보이신 겸손함과 모범을 생생하게 전하였으며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고인의 뜻을 이루자고 말씀하였다.

고 김 장로는 당시 문교부 차관으로 봉직하면서도 바쁜 중에 어깨에 띠를 두르고 종로에서 가두 전도에 열을 올리기도 한 회원 선교사이기도 하다.

장남인 김 신환 형제(영남대 교수)는 고인에게 드리는 노래로 '주기도문'을 불러서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게 하였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장남인 김 신환 형제, 차남 김 태환 형제(캐나다 거주), 장녀 김 정숙 자매(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그리고 차녀인 김 영숙 자매(영동 스테이크 고등평의원인 정 윤 형제의 부인)가 있다. *

청년 및 소년 대회 (강서 스테이크)

서울 강서 스테이크는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기도 용문에 위치한 용문 캠프장에서 청년 및 소년 대회를 가졌다.

울창한 산림 속에 함께 모인 독신 성인들과 아른 신권 청남 및 청녀들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맛보면서 중거리 마라톤, 선교 사업 세미나, 민속제, 물가의 축제, 신전 결혼 준비, 무도회 캠프 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우정을 나누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단체 생활을 통하여 서로에게 양보하고 봉사하는 정신과 솔선 수범하는 개척자 정신을 배웠으며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영적인 말씀과 간증도 들을 수 있었다. 대회 마지막 날에 가진 간증회에서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간증을 나누었으며 다양한 시상은 참석자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참석 인원 약 130여명. *

제45기 선교사 훈련원을 수료한 자매들

여군단으로 별명이 붙은 7명의 자매 선교사들이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5기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임지에서 봉사 중이다. 괄호 안은 출신 와드, 지부의 이름이다.

—다음—

- 전 재민 자매(서전주 지부)
- 장 경숙 자매(봉천 와드)
- 이 윤희 자매(봉천 와드)
- 한 영화 자매(신촌 와드)
- 이 점순 자매(신림 와드)
- 변 임순 자매(반포 지부)
- 이 애심 자매(화양 와드)

*